



www.woodencrosschurch.com
건강한 복음주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나무십자가한인교회

VISION 2015
하나님의 모든 종만하신 것으로 총만케 하시는 교회 (월 3:19)

교회소식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123기도

매일 정오 12시에 3분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끼금식선교

일주일에 하루, 한끼금식 헌금으로 선교사역에 동참합니다.

1. 주일예배 장소 및 시간변경

12월 6일(주일)부터 본당(sanctuary)에서 드립니다. 예배시간은 오후 2시로 변경됩니다. * 다음세대 목장 예배장소는 변동 없습니다.

2. 제직학교

2016년 제직임명을 위한 제직학교가 12월 13일과 20일에 있습니다.
*임명예정자 : 유은숙, 임혜경, 정동진, 신용진, 최자은, 박선아, 윤은경, 김영자, 강정은, 이광열, 최종희, 타티아나, 천길영, 김지연, 도유경, 김정미, 김선진, 유지인.

▶ 교우소식

*출타 : 임혜경집사(미국 방문)

▶ 행사

- *교회 : 12.6-성찬예배, 본당예배 / 12.13, 20-제직학교
- *2015 리더십캠프 : 12.28(월)-30일(수) / 랭리 헤브론교회
 - Main Speaker - 조현철 목사(남가주오렌지힐교회)
 - Speaker(트랙강의)- 전성민교수, Teddy Lee 목사, Daniel Park 목사
 - 10학년 이상 ● 등록 및 문의 : 정병완목사

예배위원 안내

이변주	기	1부	이강배	2부	김정미	현	박선아	안	11월
다음주	도		정병완		김선진	금	강정은	내	김은경
									12월 정동진

공동기도제목 123기도와 새벽기도 등을 통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일용한 양식에도 감사하는 성도 되도록
성도를 위해	정은경성도, 박지윤 학생 가정의 비전과 기도제목을 위해

선교현황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	다	Young 2080	김종현 목사
캐나	다	Power to Change	이정부 목사
캐나	다	하나선교회	박사라 목사
케	냐	Mission Kenya	정제호 선교사
북	한	First Steps	Susan Ritchie
한	국	Just Joy	우종진 목사

03-47

2015.11.29

주일예배

1부 9:00 2부 13:30

인도 : 정병완목사

경배와 찬양	나무십자가위십
회중기도	(1부) 이강배전도사 (2부) 김정미집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양	할레우스 찬양대
다음세대 축복	너는시냇가에
성경	잠언 30:1-9
봉헌찬송	393(통447)장
말씀	정병완 목사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 * 찬 송 2015년주제찬양
- * 공동기도 다 같이
- * 축 도 정 병 완 목 사

[성도의 교제]

*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8:00

경배와 찬양	다	같이
말씀	정	병완 목사
합심기도	다	같이

새벽기도회

매일(화-토) 6:00

QTzine 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서학당

성경읽기방 (출애굽기편)

매주 (수) 오후 1시

확신과 성수반

매주(수) 오전10시, 오후1시/(목) 오후1시

2015년 하반기 목장 나눔

후반기 7회차, 11월 30일-12월 12일

당신을 초대합니다

나무십자가한인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희생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신앙공동체, 올바른 복음과 말씀에 근거한 비전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비전공동체, 선한이웃 선교를 통해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공동체로 세움 받은 교회입니다.

나무십자가한인교회는, 캐나다 복음주의 교단인 Foursquare Gospel Church 에 속한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후 1:30
	키즈	오후 1:30
	유쓰	오후 1:30
	청년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어머니다 (목) 오전 10:00

목장모임 목장별 (격주)

성서학당	성경읽기방	(수) 오후 1시
	성경개관	년 1회
	확신과 성숙	년 1회
	제직학교	년 1회



예배안내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목장공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잠언 30:1-9)

마음열기

당신은 어떤 것에 욕심을 내는 편입니까? 욕심을 부렸다 오히려 손해를 보았던 경험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 해봅시다.

내용보기

하나님께서서는 아굴의 잠언을 통해 오직 필요한 양식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배우고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1. 아굴은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2-6절).
 - 1) 겸손한 사람(2절)
 - 2)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3절)
 - 3)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4절)
 - 4) 하나님만 유일한 보호자 됨을 깨달을 사람(5절)
 - 5)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6절)
2. 아굴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8절).
3. 아굴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8절).

나누기

1. 당신은 아굴의 성품 가운데 어떤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2.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매일 채워주시는 일용한 양식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서로 나누어 봅시다.

적용하기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결단한 것이나 개인과 공동체의 중요한 기도제목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공동체

목양편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라



송구한 말씀이지만, 한국에서 저는 심한 기침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한 숨도 못 잘 정도의 기침이 이어지더니 이윽고 목이 상하여 피가 섞여 나올 정도가 되더군요. 해마다 환절기다 되면 기침 알려지러 고생을 하기에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에 어머니의 병원에 가보라는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알러지 약만 계속 먹고 있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니 결국 병원에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 기침소리와 목 상태 그리고 청진기로 제 폐의 소리를 들던 의사는 기침 알려지가 심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니 '천식'으로 갔다고 진단하더군요. 특별히 폐 소리가 좋지 않다고 조심하라고 하니 제 마음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실, 저의 부친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저는 본래 약을 잘 안 챙겨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오래 살고 싶은 본능적 욕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현재는 심한 기침과 목에 통증이 사라졌고, 잔기침은 아직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천식을 앓고, 병원 치료를 받고 하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침이 조금 심해 졌을 때,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고집을 부릴게 아니라 병원에 와서 전문가에게 진단과 처방을 일찍 받았다면 천식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속담이 있지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비슷한 뜻의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A little leak will sink a great ship'. 이는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라는 의미이니 두 속담 모두, '작은 문제가 생길 때에 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바로 조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절대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사탄은 소위 영적인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들어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탄 본래의 사명을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즉각적으로 예배와 기도 그리고 목회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작은 문제가 결국엔 영적침체와 더불어 심할 경우,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에까지도 다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짧지 않은 사역의 경험에서 저는 그런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만히 그 원인을 따져 보면, 작은 일이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나 큰 영적인 문제나 상처가 되어 성도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한 작업의 선봉에는 늘 사탄의 속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처절한 영적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예배생활과 기도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더불어 영적 리더십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성도 된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여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5-6)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문경돈

교육목사(청년,유스) 정병완
전도사(찬양,미디어) 이강배
전도사(드림,비전) 김은경
할레루스찬양대 문경화
예배반주 양성윤

교회 (주일예배/새벽기도회)

1460 Lansdowne Dr. Coquitlam

שלמחנהמלגה (성서학당/스그룹)

2724 Barnet Hwy Dr. Coquitlam

Contact (전화/이메일)

778-772-4738
woodencrosschuech@gmail.com